

# “멕시코 해 볼만... 반드시 4강 간다”

## U-20 여자월드컵 최인철 감독 “최종 목표는 우승”

### 조별리그 3차전 미국에 0-1 패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미국에 분패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최인철 감독이 준결승 진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최인철 감독은 22일(한국시간) 독일 빌레펠트에서 열린 미국과 경기에서 0-1로 패한 뒤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회에 참가하는 팀의 최종 목표는 누구나 우승”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결과가 아쉽지만 이 경기를 밑거름으로 삼아 8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한 최인철 감독은 “0-1로 뒤진 상황에서 지소연이 상대 골키퍼와 1대 1로 맞선 결정적인 기회를 살렸다면 경기 양상이 달

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부상자가 나온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실점의 위기를 잘 막아줬다”고 말했다.

골키퍼 문소리(울산과학대)의 선방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인철 감독은 “실점 위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문소리가 선방을 해줘 점수가 더 벌어지지 않았다. 8강이 확정되긴 했지만 큰 점수 차로 졌다면 팀 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문)소리와 이런 경험을 통해 8강에서 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관 관정에 아쉬움도 숨기지 않았다. 최인철 감독은 “독일 심판이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다. (미국이 진다면 독일과 만나기 때문에) 불어줘야 할 데서 안 불고, 반대의 경우엔 경고가 나올 수 있으

니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경기하라고 지시했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쉬운 장면이 몇 번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스위스, 가나와 조별리그 1,2차전을 모두 이긴 ‘행운의 땅’ 드레스덴에서 멕시코와 4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된 것은 “익숙한 곳이고 좋은 분위기에 훌륭한 경기를 치른 곳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며 반겼다.

8강 상대 멕시코에 대해 “결과적으로 2위가 돼 멕시코를 만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힘에 기반을 둔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만한 상대”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최인철 감독은 “남은 기간 멕시코를 잘 연구해서 반드시 4강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빠른 패스축구로 세계 축구 따라잡을 것”

### ■조광래 감독 첫 기자회견 프로정신 갖춘 선수 중용 스페인 축구가 롤 모델

“세계 축구는 속도와 전쟁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를 목표로 빠른 공수전환을 앞세운 콤팩트한 축구를 구사하겠다”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조광래(56) 감독이 22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공수전환과 공격축구를 세계 축구와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재미 기간에 선수들에게 대표팀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할 것이다. 철저한 프로정신을 가진 선수를 중용하겠다”고 선수 선발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은 조광래 감독과 일문일답.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소감은.**

▲한국 축구의 세계화를 진행한다는 각오로 나서겠다. 한국 축구는 남아공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의 기적을 일구면서 빠른 공수전환과 공격축구에 대한 과제도 받았다. 해묵은 골 결정력과 수비조직력의 해결도 시급하게 떠올랐다. 빠른 공수전환을 앞세운 축구를 구사하겠다.

**-대표팀 감독을 맡는 데 두려움은 없었나. 자신의 축구 색깔은 어떤 것인가.**

▲기술위원회에서 나를 선택했을 때는 더욱 빨라지는 세계축구에 적응할 수 있



는 책임자로 평가해서라고 생각한다. 스페인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대단한 패스의 중요성도 사령탑으로 선임된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축구 유학을 하면서 패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년 전부터 패스를 강조했고, 사령탑을 맡은 팀에서도 훈련의 70% 이상을 패스에 할당했다. 한국 축구도 세계 축구에 근접하려면 K-리그뿐 아니라 대표팀 경기에서도 속도전이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 축구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로드맵을 공개한다면.**

▲2011년 아시안컵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 짐작대로 생각, 과감하게 신예를 기용할 것이다.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최고의 선수로 구성

해야 한다. 축구협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승’이라는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목표다. 아시안컵이 기술축구의 첫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선수 선발의 기준은.**

▲철저한 프로정신을 갖춘 선수를 뽑겠다. 나이로 신예와 노장을 가리지 않고 오직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선수로만 대표팀을 구성하겠다. 이름값은 물론 학연과 지연도 떠나 능력을 원칙으로 삼겠다.

**-내달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해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해외와 선수들을 모두 부르고 싶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선수들도 힘들겠지만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A매치라면 해외와 선수들도 합류하게는 좋다고 본다. **연합뉴스**



22일(한국시간) 한국의 ‘골잡이’ 지소연이 독일 빌레펠트에서 치러진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 D조 조별리그 최종전 미국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제공)

## ‘수영 영웅’ 조오련 추모 ‘바다수영대회’ 열린다

### 31일부터 이틀간 해남 땅골

지난해 고향 땅에서 타계한 ‘수영 영웅’ 조오련씨를 추모하는 바다수영대회가 열린다.

고(故) 조오련씨와 함께 바다수영을 했던 선수 및 지인들로 구성된 조오련씨 땅골바다수영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고인의 1주기를 맞아 31일부터 이틀간 해남 땅골송호 해변에서 ‘제1회 조오련씨 땅골바다수영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해남 출신으로 1970년 방콕, 1974년 태헤란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2회 연속 2관에 오르며 ‘아시아의 물개’란 애칭을 얻은 고인은 개인적으로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훈련하다 지난해 8월4일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추진위는 고인이 생전 보여줬던 불굴의 도전 정신을 잇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또 이 대회를 아시아대회로 키우는 등 본격적인 추모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국 바다수영 동호인들과 함께할 이번 추모 대회는 3.3km 개인전과 1200m 단체 릴레이 경기, 초등부(4학년 이상) 500m 경기로 나뉘어 열린다. **연합뉴스**



## 한국신 경신 실패했지만... 박태환 개인혼영 200m 1위

수영 스타 박태환(21·단국대)이 개인혼영 200m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데 실패했지만, 재능을 유감없이 뽐냈다.

박태환은 22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0 MBC전국수영대회 사흘째 남자 대학부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01초78에 레이스를 마쳐 대회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종전 대회 기록(2분06초88)을 5.10초 줄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안게임에서 김민규(아산시청)가 세운 한국기록 2분00초41에는 1.37초 뒤진 것이 아쉬웠다.

박태환이 국내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08년 10월 전국체전 이후 1년9개월 만이며, 공식 경기에서 개인혼영을 뽐낸 것은 초등학교 시절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 학생골프 선수빈 여고부 우승

〈살레시오여고〉

선수빈(살레시오여고2·사진)이 ‘제11회 전남일보배 전국학생골프대회’ 여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첫날 73타를 기록했던 선수빈은 22일 화순 900컨트리클럽에서 계속된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75타를 기록, 최종합계 4오버파 148타로 2위에 6타 앞선 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조봉초 5학년 때 아버지 전갑수씨의 권유로 골퍼에 입문한 선수빈은 “항상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아빠에게 우승의 기쁨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선수빈은 이날 우승상금(50만원) 전



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주최측에 기탁해 주변의 칭찬을 받았다.

안정건(정읍 태인중 3)은 대회 최종합계 최저타인 144타를 기록해 남자 중등부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91명이 참가해 최대 격전장이 된 남자부(고등·대학) 경기에서는 유거보(대동고3)가 최종합계 1오버파 145타로 정상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전국 안내' 섹션. 지역별 뉴스, 행사,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다.